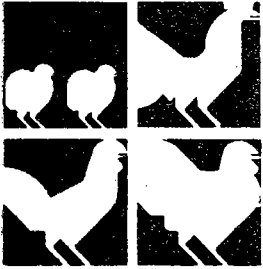


기초 양계 강좌 (육추편)



오 세 정
<진국대 교수>

- 제 1 회 ● 육추시기, 초생추구입
- 제 2 회 ● 육추사와 기구, 환경조건
- 제 3 회 ● 사양관리, 질병

7. 육추의 사양관리

(1) 부화 후 첫모이까지의 관리

병아리는 부화되어 나오는데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 또 운반으로 인하여 피로하므로 충분히 휴양시켜 난황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건강을 회복시켜야 된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부화율이 좋은 충실한 병아리라도 하더라도 발생 후 관리가 소홀하고 환경이 불량하면 병아리는 약하여 진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육추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안정시키고 휴식시킬 것, 그리고 바닥은 차거나 미끄럽지 않게 하고 검불이나 건초를 깔면 다리가 걸리어 다치는 수가 많으니 주의할 것이다.

난황의 소화가 거의 다 되는 시간은 부화 후 40~60시간 정도이니 거의 소화가 끝날 무렵에 첫모이를 급여한다. 그런데 부화가 빠르고 늦은 것의 차이가 있을 때는 먼저 발생한 병아리를 기증하여 첫모이를 급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난황의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일찍 첫모이를 급여하면 소화기의 기능이 충실하지 못한 때에 먹게 되므로 생리적인 무리를 주게 된다. 반대로 너무 늦었을 때에는 배가 고프고 체조직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쇠약하여 진다. 그러므로 날개의 주익우의 털이 3~5mm 정도 되고 배를 만져보아서 배가 부르지 않고 줄어들었을 때 첫모이를 준다.

(2) 첫모이를 급여하는 방법

처음에는 신선한 미온수를 급여하여야 한다. 이때 병아리가 물그릇에 빠지지 않게하고 털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강제로 물을 먹일 필요는 없다. 첫모이로는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영양가치 면에서 볼 때 계란을 삶아 난황(卵黃)만을 곱게 부수어 먹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첫모이사료를 특별히 배합하여 먹이는 것도 좋다.

첫모이는 섬유질이 적고 소화가 용이한 곡류(옥수수·밀·쌀씨레기·조·배아 등) 90% 정도와 양질의 어분·분유·대두박을 8%, 기타 무기물·비타민·첨가제·항병제 등을 혼합하여 급여한다.

첫모이를 먹이는 기간은 2~3일간이며 먹일 때 건조한 그대로를 먹이는 것보다는 완전히 물에 불려서 먹이면 소화가 용이하다. 소화율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하여 시루에 약간 찌서 먹이면 더욱 소화가 좋아진다.

그리고 3일 이후는 병아리사료(육추사료)를 혼합하여 먹인다.

첫모이사료에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소화가 나쁘며 설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분이 짜면 물을 많이 먹고 설사를 하며 그 도를 넘치면 중독된다.

사료는 너무 가루로 하지 말고 먹기 좋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3) 첫모이를 준 후 강약의 구분

첫모이를 먹인 후에 저녁에 모이주머니를 손으로 만져보아 불룩하고 말랑말랑한 것은 모이를 잘 먹은 것이고, 모이주머니가 만져지지 않는 것은 모이를 먹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병아리가 약하든가 발생이 늦어 모이를 먹지 않은 것이니 먹지 않은 병아리는 플라내어 별도로 격리 수용하고 이튿날 특별히 사료를 급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2~3일간 세밀히 관찰하고 강약을 구분하여 관리하면 특별한 병이 아닌 이상 병아리를 균일하게 폐사없이 잘 기를 수 있게 된다.

(4) 사료의 급여량과 횟수

병아리의 사료 섭취량은 품종·발육상태·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마른모이로 먹일 때에는 먹고 싶은대로 자유 채식시킨다. 채식시간은 처음에 20시간 먹이고 다음엔 차차 시간을 줄여 간다.

사료를 반죽하여 먹일 때에는 횟수 급여를 하여야 한다. 횟수 급여시는 모이를 주고 난 후에 20~30분에 먹는 양이 적당하다. 만일 먹다 남은 일이 있으면 부패 변질되므로 남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즉 급여 횟수는 10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반죽모이는 병아리가 영양을 섭취하는데 용이하고 소화를 돕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가 불편하고 노력이 많이 들며 사료의 낭비와 변질의 우려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마른사료로 자유 채식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5) 육추사료 배합상 주의할 점

육추사료는 병아리가 먹어 성장 증체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급여하여야 한다.

- i) 병아리사료의 사양표준에 맞추어 배합할 것 (NRC 사양표준을 기준)
- ii) 카로리 단백비를 39~42의 범위로 할 것
 - 초생추 39~42(생산에너지에 대하여)
 - 중 추 42~45
 - 대 추 45~50
 - 성 계 50~60

iii) 비타민과 무기물의 함량이 부족됨이 없도록 특별히 배합할 것. 그리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비타민의 급여량을 증가 급여할 것

iv) 섬유질의 함량이 적고 소화가 용이하게 배합할 것

v) 사료를 너무 세분하여 미세한 가루의 경우는 먹을 때 입에 붙고 사료가 날려서 손실되며 호흡기에도 들어가 이물질 폐염증을 일으킨다.

vi) 사료는 변질되지 않고 최대한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배합할 것

vii) 사료의 종류는 되도록 여러가지를 배합하므로써 양분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으며 효율이 높아진다.

viii) 사료의 종류와 배합비는 자주 바꾸지 말 것이며, 기호성이 있도록 배합할 것

ix) 사료는 한번에 너무 많이 배합하지 말아야 한다. 배합하여 오래도록 두면 변질되기 쉽고 양분이 파괴 유실되기 쉽다.

x) 첨가제를 배합할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주의할 것

xi) 영양면으로 보아서 값이 저렴하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배합할 것.

(6) 육추사료의 배합례

- 곡류사료(옥수수·밀·조·싸래기·배아 등) 58~70%
- 강류사료(밀기울·미강·탈지강·정맥강 등) 3~10%
- 동물성 단백질사료(어분·분유·혈분·육분등) 10~15%
- 식물성 단백질사료(대두박·임박·기타유박류) 10~18%
- 무기질사료(패분·골분·식염 등 미량성분) 3~4%
- 영양첨가제(비타민·효소제 등) 미량첨가
- 항병 첨가제(예방과 치료 등 항병 첨가제) 미량첨가

(7) 한무리의 수

육추할 때 육추방식과 품종에 따라서 다르나, 한무리의 수를 적게 할수록 발육 성적이 좋다. 그 이유는 생존경쟁이 적어 강약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며 개체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리할 때 닭이 물리거나 모이그릇이 부족하거나 또는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닭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8) 쪼는 성질의 방지

병아리가 20일 이상 경과되면 털·항문 주위를 쪼아 피를 내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한무리에서 발생하면 전체에 번지기 쉽다.

상술한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 i) 일정한 면적에 너무 밀사하였을 때 생긴다. 이때는 장소를 확장하도록 할 것
- ii) 실내가 너무 밝았을 때 닭은 신경이 예민하여 붉은색이 나타나면 쪼아본다. 그러므로 직사광선을 막고 실내가 아늑하도록 커튼을 칠 것.
- iii) 사료 중에 비타민·무기성분 등 양분의 결핍이 생겼을 때 일어난다. 이 때는 녹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칼슘·인·식염·부식토 등을 먹여 미량성분의 결핍이 없도록 할 것
- iv)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 이런 때에는 부리를 자르고(테비킹), 또는 병아리는 격리시킨다. 출혈 부위는 취기(臭氣)가 강한 콜탈이나 이치올 등을 바를 것이다.

발견되면 즉시 격리시키고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즉 원인을 구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9) 약추와 도태추가 많이 나오는 원인

- i) 너무 밀사하였을 경우
- ii) 모이그릇과 물그릇의 여유가 없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먹을 경우
- iii) 사료를 줄 때 한 곳에 몰리는 경우
- iv) 자웅은 혼사(混飼)하는 경우
- v) 약하고 병든 것을 속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vi) 환경조건이 불량한 경우 즉 온도·습도·환기·안정 등 위생적일 것

vii) 관리자가 애착심이 없이 기계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

viii) 사료의 배합이 잘못되었을 경우

ix) 질병이 침입하였을 경우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강약이 생기고 도태추가 생기니 철저한 사양관리로 균일하게 육추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10) 급은 폐지 전후에 주의

육추 계절에 따라 급은기간의 장단은 있으나, 폐은시 급작스럽게 단열하지 말고 1주일 정도 낮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피워주는 등 점차적으로 폐은하여야 한다. 만일 추운 때 폐은하면 밀접되어 암사하는 일이 생긴다.

흔히 폐은 전후에 방심으로 인하여 병아리를 약하게 만들며 실패하는 수가 많다.

(11) 점등 사양관리

일조시간만 가지고는 채식시간이 짧다. 그러므로 밤 12~1시 사이에 점등하고 사료와 물을 먹도록 관리한다. 그러면 배가 고픈 것은 모이를 먹고 물을 먹고 싶은 것은 물을 먹는다. 기타 야간의 환경조건과 병아리의 상태를 관찰 조사하기 위하여 점등관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 최근 점등에는 점감 점등법을 쓰는 사람도 있다.

(12) 소화불량추가 나오는 원인

병아리의 식체는 사양관리의 잘못으로 일어 난다.

- i)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았을 때
- ii)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하였을 때
- iii) 환기가 나빴을 때
- iv) 물을 먹지 못하였을 때
- v) 섬유질이 많았을 때(긴 섬유숙)
- vi) 굶었다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포식시켰을 때

(13) 질병에 대한 대책

육추시에 많이 나오는 병은 추백리·룩시듬·뉴켓슬·계두·CRD·기관지염·기생충 등 병원체에 의한 것이 있고 영양적 결함으로 생리적 장

해를 일으키며, 제2차적인 세균성 감염으로 병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 환경조건의 불비와 관리의 부주의로 병아리가 약하여져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함은 물론 위생적인 환경과 사양관리의 철저로 질병의 유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닭은 예방에 힘을 써야 하며 병이 난 뒤에 치료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면 몇 배의 시간과 경비가 들며 발육이 늦어진다.

그러므로 영양 첨가제는 물론 항병 첨가제를 급여하여 건강하게 육성할 것이다.

(14) 증추의 방사

폐온 후 병아리가 자연온도에 적응되면 충분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켜 몸을 충실하게 육성하므로서 성계가 된 후에 도태율이 적고 경제적 수명이 길며 능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폐온 후(50일령)부터 방사를 시작하여 초산 직전(130일령)까지 방사를 계속한다.

방사장에서 순환방사를 하면 초지의 보호도 되고 사료비도 절약된다. 가급적이면 육성 중 방사하여 건실하게 육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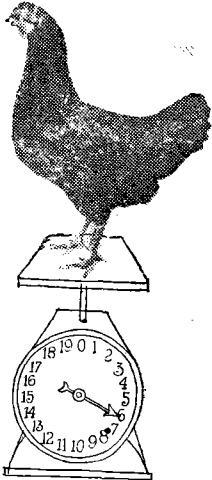
(15) 도 태

육추 중 병으로, 영양적·환경적으로 인하여 약해진 것은 격리 수용할 것이며, 장래성이 없는 것은 억지로 기르지 말고 과감하게 도태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기르려고 할 때 노력만 들고 또한 약값과 사료비만 낭비하게 된다. 그것은 성장한 뒤에 초산이 늦는 것은 물론 능력의 저하로 경제성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약추가 생기면 그 원인을 구명하는 동시에 다른 병아리에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과단성 있는 판단 아래 도태할 것

도태의 기준

- i) 평균체중에 미달된 것
- ii) 활력이 없고 식욕이 감퇴된 것
- iii) 품종의 고유한 특징을 갖지 못한 것.
- iv) 발육이 불량하여 정상에 못되는 것

세계의경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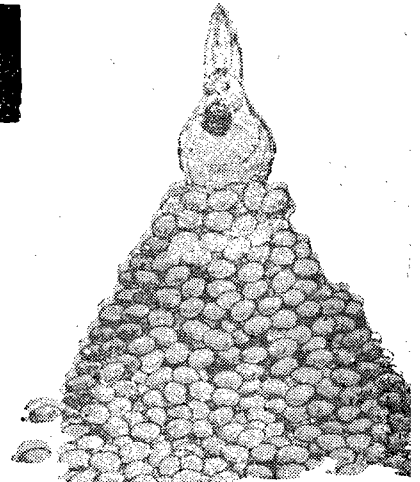


B390



B300

B390



B 300

美國바부곡原種農場韓國特約孵化場
●全群自家種鷄責任生產

鳳鳴孵化場

忠南天安市鳳鳴洞60-1 TEL. 792